http://dx.doi.org/10.14400/JDC.2015.13.11.255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

서명희*, 정석희**, 신자현***, 이명인***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HIV/AIDS among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Myoung Hee Seo*, Seok Hee Jeong, Ja Hyun Shin***, Myung In Lee*****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도의 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97명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료수집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는 각각 15점 만점에 평균 8.91, 7.00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과 태도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34, p<.01)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 또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의 HIV/AIDS 관련 지식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주제어 : HIV, 후천성면역결핍증, 지식, 태도, 의학, 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levels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HIV/AIDS in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in 2014. Participants were 97 students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The mean score for HIV/AIDS knowledge was 8.91 and attitude was 7.00 out of 15. The levels of HIV/AIDS knowledge and attitud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HIV/AIDS knowledge and attitude. Medical students having a high HIV/AIDS knowledge level tended more towards a positive attitude.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education strategies for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to increase knowledge and decrease negative attitude toward HIV/AIDS.

Key Words : HIV,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Knowledge, Attitude, Medical student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0 September 2015, Revised 21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a Hyun, Shin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Dept. of Nursing Science)
Email: shinjahyun97@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미국에서 1981년 HIV에 감염되어 AIDS로 질병이 진행된 환자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첫 보고된 이후 전 세계 HIV 감염인 수는 2011년 기준 약 3,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1],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에 AIDS로 질병이 진행된 환자가 처음 신고 된 이후 2014년도까지 HIV 감염인 수가 9,6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2].

의학의 발전으로 HIV/AIDS는 '관리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정의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3], 여전히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사람들은 HIV/AIDS를 치료 불가능하며, HIV 감염인은 윤리적 일탈 행위자로서 감염을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4], HIV/AIDS와 관련하여 죽음, 불치병 등과 같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연상 단어들을 주로 떠올린다[5].

이러한 HIV/AIDS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지식은 HIV/AIDS 감염인이 직면하고 있는 치료부담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어려움에 더불어 낙인 및 사회적 고립[6] 등을 유발하며, 이러한 낙인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7]. 이렇듯 HIV/AIDS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 속에 사회적 소수자로서 공존하며 지내고 있기에[8], 이들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인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HIV/AIDS 감염인들을 많이 접하며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의 HIV/AIDS에 대한 지식부족과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대상자의 대변자, 옹호자, 치료자 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의료인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등 의료전문직의 윤리에 어긋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건강관리자인 보건/간호직 공무원, 1, 2차 병·의원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개업약국의 약사들의 HIV/AIDS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점수가 낮은 편이며[10], 예비의료인인 의학계열 대학생들도 HIV/AIDS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11], 의료인을 포함한 건강관리자들에게도 일반인들과 유사하게 HIV/AIDS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기인되며[12], HIV/AIDS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식이므로[13],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들의 건강을 책임 질 예비의료인인 의학계열 학생들이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교과과정 분석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방대한 양의 의과교육 내에서 HIV/AIDS에 대한 질병 및 치료중심의 내용 이외의 사회 시사적이고, 법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로 인해 의료상황 및 의학의 변화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의학교육 분야에서도 2010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변화된 의학교육제도 하에[14]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타 분야 전공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6,11], 최근에는 간호계와 비간호계 여대생[15], 약학대학생[16],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17]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실시되어져 왔을 뿐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치료자, 대변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료인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또한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기에, 이들이 HIV/AIDS에 대해 어떠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

AIDS 관련 지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의료인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우리나라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본 연구는 J도의 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전 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연구를 위해 사용한 도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교육사업에서 사용된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에이즈 관련 지식 및 태도 평가도구'[18]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식 평가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선택하며 역문항의 경우 역환산 처리하여 정답은 1점, 모르겠다를 포함한 오답은 0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HIV/AIDS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태도 평가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모르겠다" 로 선택하며 역문항의 경우 역환산 처리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는 1점, "모르겠다"를 포함한 부정적인 태도는 0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HIV/AIDS 관련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에이즈 관련 지식 및 태도 평가도구는 본 연구자가 2013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설문 문항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참여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질문 내용에 혼란을 주는 일부 문구들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즉, 지식 1번 문항 "HIV에 감염되지 않은 신뢰할만한 한명의 파트너하고만 성관계를 할 경우 AIDS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에서 대상자들이 성관계 이외의 전파경로를 고려하면서 오답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문항에 추가적으로 "성관계를 통한 전파시"라는 단서를 삽입하였다. 또한 태도 4번 문항 "만약 가족 중에 HIV에 감염이 된 분이 계실 경우 창피를 당할까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고 싶습니까?"에 대해 '숨기고 싶지만 그 이유가 창피를 당할까봐서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대상자들이 피드백을 해줌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만약 가족 중에서 HIV에 감염인 된 분이 계실 경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고 싶습니까?" 라고 수정한 후 숨기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는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 HIV/AIDS 관련 교과목의 수강유무, HIV 감염인을 접해본 경험의 유무를 포함하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8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학전문대학원 담당 과목 교수인 감염내과 의사로부터 연구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은 후, 병원 임상실습 중인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 중 감염내과 실습을 배정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졸업여행, 명절 연휴 등이 포함된 2주를 제외한 총 17주 동안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전 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연구 목적과 내용 및 설문작성 소요시간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 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전 수인 98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

가 배부되었으며 9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00%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총 97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과 추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 네 자리를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문항별 응답율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6) HIV/AIDS 관련 태도의 4번 문항인 '가족 중에서 HIV에 감염인 된 분이 계실 경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고 싶은 이유'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질적자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7.4%, 여자가 52.6%이며, 평균 연령은 28.6±2.54세였다. HIV/AIDS 관련 교과목의 수강경험 여부는 수강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4.3%, 수강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5.7%였으며, HIV/AIDS 감염인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0.8%, 접해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9.2%로 나타났다. 감염인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그 경위를 질문하였는데 병원 임상 실습 과정에서 회진 시에 입원해 있는 HIV/AIDS 감염인을 접한 경험이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봉사활동이나 선교지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개인의 경험에 의해 HIV/AIDS 감염인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46(47.4)
	Female	51(52.6)
Age(year)		28.6±2.54
	20~29	67(69.1)
	30~39	30(30.9)
Attending lectures about HIV/AIDS	Yes	43(44.3)
	No	54(55.7)
Contact with PLWHA	Yes	59(60.8)
	No	38(39.2)

PLWHA=People Living With HIV/AIDS

3.2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정도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HIV/AIDS 관련 지식의 경우 총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는 8.91±2.00점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분포는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의 범위에 있었다. HIV/AIDS 관련 태도의 경우 총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는 7.00±2.72점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분포는 최저 1점에서 최고 12점의 범위에 있었다<Table 2>.

〈Table 2〉 Levels of HIV/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N*=97)

Variables	Mean±SD	Range
HIV/AIDS Knowledge	8.91±2.00	4~14
HIV/AIDS Attitude	7.00±2.72	1~12

3.3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문항별 점수

HIV/AIDS 관련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

면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항이 총 15문항 중 5문항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답율이 높은 문항은 12번 문항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 중 HIV 감염인으로부터 의료인에게 전파가 일어난 사례는 없다"로 정답인 "예"로 응답한 대상자는 8.2%였다. 두 번째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은 11번 "수술환자에게 HIV 검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료행위 중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보편적 주의 원칙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로 정답인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는 13.4%였다<Table 3>.

다음으로 HIV/AIDS 관련 태도에서 대상자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전체 15문항 중 3문항이었다. 가장 많은 대상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4번 문항 "만약 가족 중에서 HIV에 감염이 된 분이 계실 경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고 싶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예"라고 응답하여 '숨기고 싶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의 95.9%였다. 다음으로 문항 8번 문항(94.8%), 13번 문항(93.8%)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에 대한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문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2문항 "동료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회피한다면 대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49.5%, 부정적인 태도가 50.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Table 4>. 추가적으로 태도 4번 문항 "만약 가족 중에서 HIV에 감염이 된 분이 계실 경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고 싶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예'라고 응답한 총 93명 중 51.6%인 48명이 그 이유를 기술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가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볼까봐'(21명, 43.8%)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HIV에 감염된 가족이 차별,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낙인 및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20명, 41.7%), 'HIV에 감염된 가족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므로'(7명, 14.6%), 'HIV에 감염된 가족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3명, 6.3%),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3명, 6.3%), '실제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1명, 2.1%)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3.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성별, 나이, HIV/AIDS 관련 교과목 수강경험 및 HIV/AIDS 감염인을 접해본 경험

〈Table 3〉 General knowledge of Subjects on HIV/AIDS (*N*=97)

No.	Item	Correct response	Correct response rates n(%)
12	There are no cases that people living with HIV are transmitted HIV to medical staffs during medical practice.	Yes	8(8.2)
11	HIV test on a regular basis for surgery patients is essential action to comply with universal precaution to prevent infection in medical practice.	No	13(13.4)
8	There are relative lots of HIV infection by sexual contact in Korea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Yes	21(21.6)
15	Like most developed countries, people living with AIDS have been recognized as legal disability people.	No	34(35.1)
14	People living with HIV is legally restricted in employment as a medical staff.	No	38(39.2)
7	HIV test must do by people's real name according to AIDS prevention law currently.	No	55(56.7)
10	If you have an injury with the needle of syringe that used on AIDS patient, you should take antiviral agents for about four weeks in principle.	Yes	56(57.7)
4	HIV can be transmitted by mosquitoes.	No	67(69.8)
1	If you have sex with the reliable partner only that isn't infected with HIV, you will not have HIV infection.	Yes	71(73.2)
13	HIV test resluts should be notified only to its own person. However, if the person lives in military or dormitory, the result of HIV test should be also notified to the chief of facility.	Yes	71(73.2)
9	HIV infection, a HIV positive person, and an AIDS patient may be used as same meaning because they can not divide clinically.	No	76(78.4)
6	People living with HIV will be completely cured if they take antiviral agents well.	No	78(80.4)
5	If you have a meal together with People living with HIV, you can be infected with HIV.	No	89(92.7)
2	Using the condom can reduce the likelihood of HIV infection.	Yes	93(96.9)
3	People living with HIV can seem healthy appearance just like any other healthy people.	Yes	96(99.0)

〈Table 4〉 Attitude of Subjects toward HIV/AIDS (*N*=97)

No.	Item	Positive attitude n(%)	Negative attitude n(%)
4*	If one of your family members is infected with HIV, do you want to hide this fact to others?	4(4.1)	93(95.9)
8*	When you get a blood sample from people living with HIV, do you think it is desirable to wear rubber gloves differently as you do the case of a general patient?	5(5.2)	92(94.8)
13*	Do you think that it needs to write any marking on medical records for people living with HIV to protect you and your colleagues?	6(6.2)	91(93.8)
9	Do you think that people living with HIV in Korea have more heavily discrimination than them in other countries?	30(30.9)	67(69.1)
10	Do you think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government budget for people living with HIV?	36(37.1)	61(62.9)
2	If you know that the owner or salesman of the grocery store is a HIV infected person, do you want to buy fresh vegetables from him or her?	36(37.1)	61(62.9)
11*	Do you want to avoid medical treatment that are assigned to you for people living with HIV?	46(47.4)	51(52.6)
15	Do you think that your attitude about people living with HIV have changed positively comparing with approximately five years ago?	47(48.5)	50(51.5)
12	Are you willing to do instead of them if your colleagues avoid medical treatment for people living with HIV?	48(49.5)	49(50.5)
3	If a female teacher of any school is infected with HIV but her health status is good, do you agree with that she teach students continually?	51(52.6)	46(47.4)
14*	Do you think it is natural for the patient to have a HIV test even if he or she is hospitalized for other disease without express concent?	60(61.9)	37(38.1)
7	Are you able to have a meal with people living with HIV?	65(67.0)	32(33.0)
5*	Medical expenses of people living with HIV(it covers excess related to HIV infection) are supporting in Korea government. Do you think that such a system is the excessive benefit for people living with HIV?	81(83.5)	16(16.5)
6*	Do people living with HIV send to the specific accommodation facility for isolation from others?	81(83.5)	16(16.5)
1	If one of your family members is infected with HIV and sick, will you be willing to live together with and take care of him or her ?	83(85.6)	14(14.4)

*Reverse items

〈Table 5〉 HIV/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IV/AIDS Knowledge			HIV/AIDS Attitude		
			Mean±SD	t	*p*	Mean±SD	t	*p*
Gender	Male	46(47.4)	8.91±1.94	-0.01	.993	6.74±2.85	-0.90	.372
	Female	51(52.6)	8.92±2.08			7.24±2.60		
Age(year)	20~29	67(69.1)	9.14±2.16	1.63	.106	7.00±2.70	0.00	>.999
	30~39	30(30.9)	8.41±1.52			7.00±2.80		
Attending lectures about HIV/AIDS	Yes	43(44.3)	9.22±2.16	1.30	.196	7.20±2.70	0.68	.501
	No	54(55.7)	8.68±1.86			6.83±2.74		
Contact with PLWHA	Yes	59(60.8)	9.17±1.97	1.60	.114	7.42±2.53	1.94	.055
	No	38(39.2)	8.50±2.02			6.34±2.90		

PLWHA=People Living With HIV/AIDS

에 따라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5>.

3.5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 p<.01). 즉,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HIV/AIDS 관련 태도가 긍정적이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HIV/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N*=97)

Variables	HIV/AIDS Attitude r
HIV/AIDS Knowledge	.34*

*p<.01

4. 논의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로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유사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 점수는 총 15점 만점 중 평균 8.9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100%로 환산하였을 때 지식 성취도는 5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간호사[19], 보건계열 대학생[17], 간호대학생[15,20,21]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식점수 성취도가 62.43%~84.05%로 나타난 것보다 낮았다. 또한 의료 및 보건계열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각 시도별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일반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의 지식정도가 4점 만점에 2.86점으로 성취도 71.5.%로 나타난 결과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지식 성취도가 84%로 나타난 것보다도 본 연구 대상자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지식 성취도가 간호학과 및 의학과 대학생 51.7%[11], 비보건계열의 일반대학생 59.2%~59.3%[15,17]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정도가 일반인, 의학 및 보건계열 학생 및 의료종사자들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HIV/AIDS 관련 태도 점수는 총 15점 만점 중 평균 7.00점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최고의 긍정적인 태도를 100%로 하여 점수를 환산하였을 때 46.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태도 정도가 종합병원간호사 63.9%[19], 의학계열 대학생 66.4%[11], 간호대학생 60.4%~71.6%[20,21], 보건계열 대학생 69.3%[17], 일반대학생 52.8%~62.6%[15,17] 및 일반인 62.0%[2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일반인 및 의학 및 보건계열 대학생들보다 높지 않고 낮거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IV/AIDS 대상자를 치료하고, 옹호하고, 대변해야하는 역할을 감당할 미래의 의료인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을 증진시키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식과 태도에 대한 문항별 결과에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답율을 보인 HIV/AIDS 지식 문항들은 학교 교육에서 다루었거나,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HIV/AIDS의 질병 특성, 전파경로, 증상 및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오답율이 높았던 문항들의 경우는 교과서적이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수준의 문항이 아닌 HIV/AIDS에 관련한 사회 시사적이고, 법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HIV/AIDS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가 대중매체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24],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경우 잘못된 인지에 국한되는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HIV/AIDS 관련 보도나 기사들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25] 대중매체에서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정황에 따른 사실이나 사건 후의 사후 조치 등을 보도함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답율이 가장 높았던 지식 12번 문항의 경우, 의료행위 중에 HIV 감염인으로부터 의료인이 감염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26], 대중매체의 보도에서 본 듯하고 있을 법도 하여 대상자들이 의료행위 중의 감염사례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에 포함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HIV/AIDS 관련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오답율이 높았던 11번 문항은 수술환자에게 HIV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보편적 주의원칙 준수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보편적 주의원칙이란, 환자의 진단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수행되는 감염예방 전략으로[26], HIV감염인을 치료하는 데에도 보편적인 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정례적 검사는 의료기

관에서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편적 주의 원칙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따라서 HIV 감염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의료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인의 자세로서 더 중요한 사항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HIV/ADIS에 관련 태도 문항에서 96%에 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숨기겠냐'는 4번 문항이었다. HIV/ADIS는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질병이기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나머지 가족이 받게 될 고통, 낙인, 차별, 편견 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든 일반인이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번 문항에서 'HIV에 감염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봐줄 의향'은 긍정적인 태도가 71%로 더 많았는데 이는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도문항 11번과 12번의 경우는 HIV감염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가 잘 반영되는 문항으로 보여지는데,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회피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2.6%였으며, 12번 문항에서 '동료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회피한다면 대신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대신할 생각이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49.5%, '대신할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50.5%로 과반수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9번 문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외국에서보다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30.9%,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69.1%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경험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은 HIV/AIDS 감염인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료행위를 회피하고 싶거나, 동료의 의료행위를 대신할 생각이 없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료윤리 및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장전 등에 제시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환자에게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를 받고,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및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와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즉 다른 환자들과 같이 HIV/AIDS 감염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IV/AIDS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의료현장에서의 차별 및 의료적 접근성의 제약은 HIV/AIDS의 건강 및 삶의 질, 및 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 교육 이외에도 HIV/AIDS에 대한 의료윤리 및 인권 등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 즉 성별, 나이, HIV/AIDS 관련 교과목 수강경험 및 HIV/AIDS 감염인을 접해본 경험에 따라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식[15]과 태도[15,19]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11,19,20,27,28,29], 다른 만성질환보다 특히 HIV/AIDS 관련 교육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다[22].

또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및 태도의 차이분석에서 본 연구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HIV/AIDS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와 관련해 각 시도별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일반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선행연구[22]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정보를 접한 경우에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HIV/AIDS 관련 교육의 수강여부의 중요성 보다는 교육의 내용 및 체계성 등 교육의 질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HIV/AIDS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의 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HIV/AIDS 관련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HIV/AIDS 관련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학계열 대학생[17,20,21], 일반대학생[27], 의료인[30]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식과 태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즉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같은 인지적 정보 등에 의해 태도가 형성된다[31,32]는 것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결과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지식제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태도는 지식에 의하여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태도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HIV/AIDS 관련 교육 제공시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변화에도 중점을 두어 지식과 태도형성에 균형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래에 HIV/AIDS 감염자들의 대변자, 옹호자, 치료자 등으로서의 올바른 실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변화된 의학교육제도 하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타 분야 전공생들로 이루어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HIV/AIDS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대상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을 위해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하여 HIV/AIDS 관련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의 HIV/AIDS 관련 지식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 관련 지식 및 태도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HIV/AIDS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 또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REFERENCES

[1] UNAIDS, “Global report: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2012”,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en/media/unaids/contentassets/documents/epidemiology/2012/gr2012/JC2417_GR%202012_Annexes_en.pdf (October 7, 2015).

[2]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3] UNAIDS and WHO, “UNAIDS 2003 Report. Geneva: UNAIDS”, 2003.

[4] Kyoung-Ha. Kim,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HIV/AIDS patients, social stigma and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2013.

[5]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3.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6] S. H. Her, J. E. Kim, S. M. Kim, S. H. Kim, D. G. Kim, S. Y. Kim, M. H. Hong, Y. S. Choi, "Medical students' knowledge about AIDS/STDs: Comparing with non-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0, No. 2, pp. 85-90, 2007.

[7] I. J. Lee, & Y. S. Rhe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4, No. 3, pp. 347-369. 2013.

[8] S. B. Shin,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pp. 424-453, 2011.

[9] C. Kunzel, & D. Sadowsky, "Predicting dentists' perceived occupational risk for HIV infe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36, No. 12, pp. 1579-1586, 1993.

[10] J. H. Ya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IDS education program for health care work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9, No. 1, pp. 121-131, 2007.

[11] M. H. Sung,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AIDS of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2, pp. 221-228, 2008.

[12] M. Marquet, & N. Beltzer, "Knowledge and discrimination: What kind of relationship?. In: Hubert M, Sandfort T, Bajos B, editors. Sexual behaviour and HIV/AIDS in Europe: Comparisons of national surveys. London: UCL Press", 1998.

[13] E. J. Choi, W. Kim, S. B. Jung, I. S. Whang, & J. N. Yang,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IV/AIDS among health care offic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6, No. 5, pp. 41-55. 2009.

[14] J Korean Med Assoc. 2008 Sep;51(9):786-789. Korean.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08. http://dx.doi.org/10.5124/jkma.2008.51.9.786

[15] Y. M. Kim, J. S. Han, & O. C. Le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HIV/AIDS in comparison with chronic hepatitis B among female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0, No. 2, pp. 31-40, 2014.

[16] W. Huh, Y. M. Yang, E. Jeong, J. E. Lee, N. K. Je, J. J. Lee, S. C. Lim, & E. J. Choi, "An assessment of HIV/AIDS knowledge, attitudes, and risk perceptions among Korean pharmacy students. Yakhak Hoeji", Vol. 58, No. 5, pp. 349-356, 2014.

[17] M. R. Lee,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in undergraduates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and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1, No. 2, pp. 213-222, 2011.

[18]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valuation of 2012 Education Work for Health care provider. Final Report. Incheon Cit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13 November. Report No: None.

[19] A. Han, S. H. Choi,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regarding AIDS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15, No. 2, pp. 1-12. 2014.

[20] J. Park, J. Gu, "Attitudes and knowledge toward HIV/AID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national universit of transportatio", Vol. 46, pp. 391-398. 2011.

[21] Y. Han, "The effect of AIDS education o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3, pp. 467-476. 2001.

[22] S. Y. Kim, J. S. Lee, S. K. Park, & Y. I. Kim,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a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5, No. 4, pp. 13-28, 2008.

[23] Yeon. Haw. Ju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among Journalists, Master's

thesis, Pusan, Inje University", pp. 1-40, 2006.

[2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Korean Fedn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Cheongju: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2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IV/AIDS foundational course for professional training. Cheongju: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26] J. M. Kim, & J. Y. Choi,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Seoul: Koonja". 2007.

[27] B. Y. Oh, S. D. Yang, & S. Y. Ju, "Knowledge, ㅁttitudes and optimistic bias about AIDS of students. Journal of Human Rights Welfare", Vol. 17, pp. 89-112, 2015.

[28] Ayranci U.,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in a Turkish population: an epidemiological study. BMC Public Health", Vol. 5, No. 1, pp. 95, 2005.

[29] J. P. Moatti, L. Manesse, C. Le Gales, J. P. Pages, & F. Fagnani, "Social perception of AIDS in the general public: a French study. Health Policy", Vol. 9, No. 1, pp. 1-8, 1988.

[30] J. Lee, H. J. Yoon, & H. S. Kim, "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medical professionals about AIDS.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57-77, 2005.

[31] J. L. Freedman, D. O. Sears, & J. M. Carlsmith,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1.

[32] E. R. Smith, & D. M. Mackie, "Social Psychology, 2nd ed.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2000.

서 명 희(Seo, Myoung Hee)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1년 5월 ~ 현재 : 전북대학교병원 HIV 상담간호사
- 관심분야 : 간호관리, HIV, 교육
- E-Mail : musudari@jbnu.ac.kr

정 석 희(Jeong, Seok Hee)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0년 4월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 2010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간호윤리, 간호연구
- E-Mail : awesomeprof@jbnu.ac.kr

신 자 현(Shin, Ja Hyun)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기본 · 성인간호
- E-Mail : shinjahyun97@gmail.com

이 명 인(Lee, Myung In)

- 2013년 8월 : 전북대학교(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milee@jvision.ac.kr